

중국 랴오닝성, NEAR 가입 신청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1.03.29.(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TV	안동MBC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2	신문	매일신문	중국 랴오닝,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제출	
3	신문	대구일보	경북도, 중국 랴오닝성과 교류 활발해 진다	
4	신문	경북도민일보	中 랴오닝성, NEAR 79번째 가입 신청	
5	신문	경북신문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79번째 가입 신청	
6	신문	대경일보	동북아자치단체聯, 새 파트너 합류	
7	신문	경북연합일보	중국, 랴오닝성, NEAR 79번째 가입 신청	
8	신문	대구경북일보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9	신문	세명일보	中 랴오닝성, 동북아시아지역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10	신문	일간경북신문	中 랴오닝성, 동북아시아지역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11	신문	경대일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 中 랴오닝성, 79번째 가입	
12	신문	아시아투데이	경북도가 주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중국 랴오닝성 가입 신청	
13	신문	영남경제	중국 랴오닝성, NEAR 단체 79번째 가입 신청	
14	신문	전국매일신문	中 랴오닝성, 동북아시아지역단체연합 가입 신청	
15	신문	경안일보	中 랴오닝성, 경북 주도 NEAR에 가입 신청서 제출	
16	인터넷	유교신문	중국 랴오닝성, 경북도 주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17	인터넷	구미뉴스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18	인터넷	영남타임즈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19	인터넷	노컷뉴스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20	인터넷	UPI뉴스	경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 가입”	
21	인터넷	뉴스랩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22	인터넷	위클리오늘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23	인터넷	아주경제	경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24	인터넷	뉴시스	중국 랴오닝성, NEAR 가입 신청... 회원 지자체 79개로 늘어	
25	인터넷	GBN 경북방송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26	인터넷	뉴스포인트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27	인터넷	영남타임즈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28	인터넷	드림저널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29	인터넷	CBN뉴스	경상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30	인터넷	세계타임즈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31	인터넷	미디어투데이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32	인터넷	IPN뉴스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33	인터넷	케이에스피뉴스	경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34	인터넷	쿠키뉴스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35	인터넷	국제i저널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서 제출	
36	인터넷	시사코리아저널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37	인터넷	플러스코리아	[경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38	인터넷	UGN경북뉴스	랴오닝성, 경북도 주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39	인터넷	에너지경제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40	통신사	NSP통신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41	통신사	중부뉴스통신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42	통신사	글로벌뉴스통신	경북도 주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중국 랴오닝성 79번째 가입 신청	
43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44	통신사	세계뉴스통신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뉴스

< 2021.03.29 >

제목

내용

작성일자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목록

2021-03-29 | 이정희 | 57



이번주 금등할 종목 차트입니다

회사명은 상한가 사냥꾼입니다

광고 상한가사냥꾼

열기

TALK 카카오톡 제보하기



링크복사

스크랩

중국 랴오닝성이 최근 경복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 END ▶

중국 랴오닝.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제출

매일신문 배포 2021-03-31 10:34:03 | 수정 2021-03-31 10:33:58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가입 지자체들을 나타낸 지도. NEAR 제공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NEAR 회원단체 숫자는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중국 11개·일본 11개·몽골 22개·러시아 16개·북한 2개 등이다.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인 랴오닝성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지역이다.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한국 공공기관 및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랴오닝성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4천351만 명이며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한다. 1인당 GRDP는 8천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장비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했다.

경북도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면서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교류가 시작됐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랴오닝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전면 중단된 시기임에도 지난 23일 가입 신청을 정식 제출했다. 지자체 간의 풀뿌리 교류를 지속해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꾀하자는 NEAR의 설립 취지에 공감한 것"이라며 "앞으로 NEAR 사무국을 지원해 온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의회 차원의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고 전했다.

한편, NEAR은 지난 1996년 한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단체가 공동 발전을 위해 설립한 협력기구이다.

한국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서는 함경북도와 라선특별시가 가입했다. 상설 사무국(포항테크노파크 내 위치)의 운영 전반은 경북도가 담당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대구일보

2021년 03월 30일 화요일 002면 종합

경북도 창설 국제기구 'NEAR' 중국 라오닝성, 회원가입 신청

4천만 명 이상의 인구로 한국의 1.5배 면적을 지닌 중국 라오닝(遼寧)성이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에 가입한다.

라오닝성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해 있다.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코트라(KOTRA), 관광공사 지사와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국 라오닝성은 최근 NEAR 사무국에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

를 제출했다. 올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NEAR은 1996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이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도민일보

2021년 03월 30일 화요일 004면 종합

中 라오닝성, NEAR 79번째 가입 신청

경북도는 중국 라오닝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라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인 선양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0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라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中 랴오닝성, 'NEAR'에 79번째로 가입 신청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가을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인교 기자

대경일보

2021년 03월 30일 화요일 002면 종합

동북아자치단체聯, 새 파트너 합류

경북도 주도 1996년 9월 창설 중국 랴오닝성...79번째 회원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

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천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 **㎢**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천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상휘 기자 js1013h@naver.com

중국 랴오닝성, NEAR 79번째 가입 신청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 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

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 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했다.

문봉현 기자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가을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14㎢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이종훈기자

세명일보

2021년 03월 30일 화요일 002면 지방·지역

中 랴오닝(遼寧)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0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14㎢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붉은선이 랴오닝성 위치 (중북도 제공)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

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용진 기자



경북도의회 고우현의장은 29일,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을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차원의 공동대응·협력에 의견을 모았다. 이종팔기자

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 79번째 가입 신청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협력 추구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경북도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 中 랴오닝성, 79번째 가입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0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중국 랴오닝성, NEAR 단체 79번째 가입 신청

중국 랴오닝성, NEAR 가입 신청

경북이 주도... 회원단체 79개 확대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랴오닝성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이다.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한국 공공기관과 10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만8600㎢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동=김정섭 기자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 의회 대표단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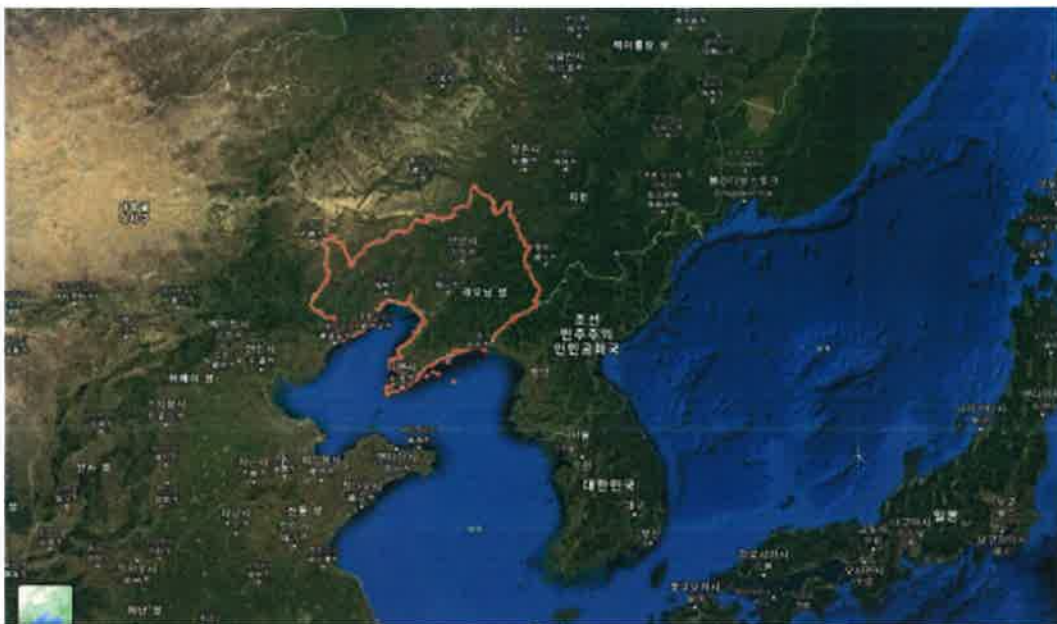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앞으로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신윤 기자

中 랴오닝성, 동북아시아지역단체연합 가입 신청

경북/ 신용대기자 승인 2021.03.29 13:59

| 경북도 주도 1996년 창설...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78개 광역단체 회원



지도로 표시된 랴오닝성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에 중국 랴오닝성이 최근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사무국이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13차 NEAR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되면 총 79개 단체로 늘어나게 된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앞으로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신용대기자



프린트하기 닫기

中랴오닝성, 경북 주도 NEAR에 가입 신청서 제출

올 가을 13차 총회서 승인 시 79번째 회원으로 자리

경북도-中간 경제·문화·관광 등 교류 확대될 듯

김구동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30일(화) 20:59

[경안일보=김구동 기자]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천351만 명이며 면적은 1만4천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한다. 1인당 GRDP는 8천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url : http://www.gailbo.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89&idx=305287

Copyrights ©경안일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랴오닝성, 경북도 주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2021-03-29 오후 7:59:26

전진만 기자 ✉ yaho@ugn.kr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회원 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고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됐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한다"며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cfnews.kr/news.aspx/46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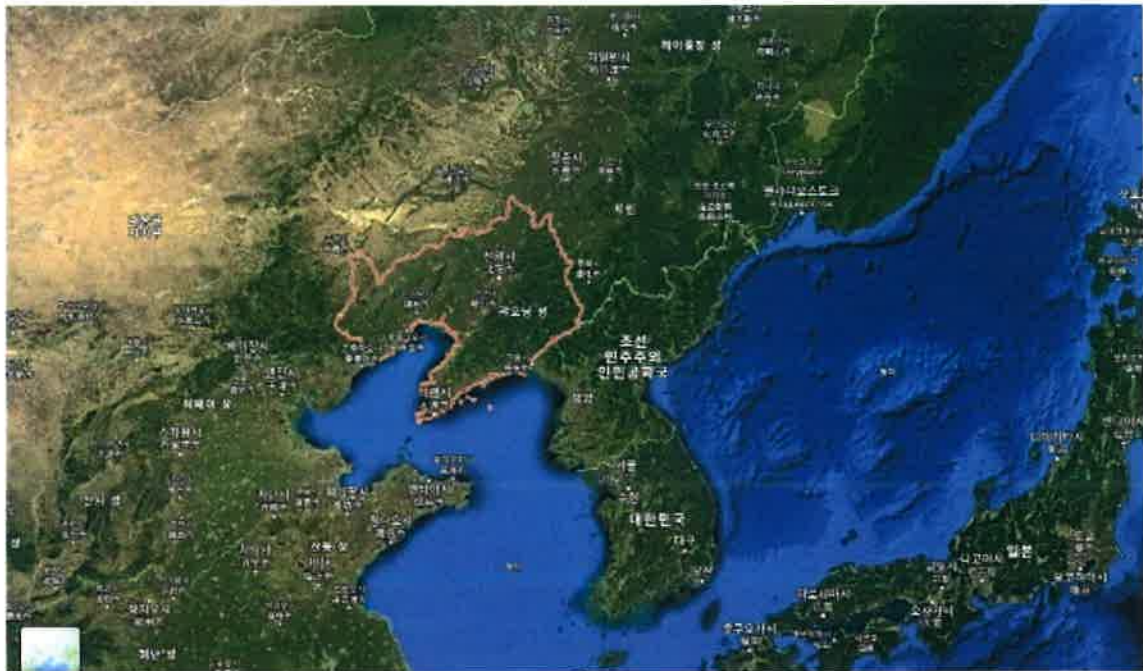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임양춘 기자 lyc8769@hanmail.net

등록 2021.03.29 14:02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중국 다롄과 동베이 지방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 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Copyright ©2021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기사작성: 2021-03-29 AM 9:45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다롄과 동베이 지방



이유광 기자dcht7000@naver.com

[영남타임즈.kr uyn@uyn.co.kr] 2021-03-29 AM 9:45
<Copyright (c) 영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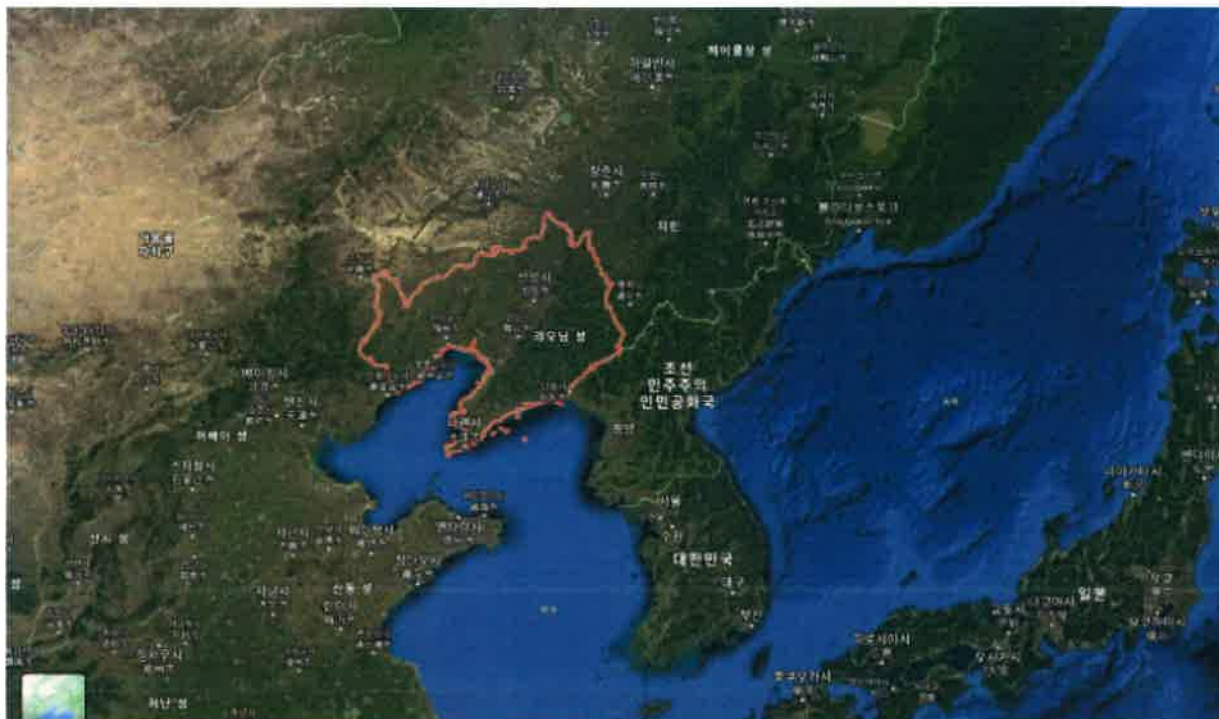
🖨️ 프린트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2021-03-29 09:38 대구CBS 김세훈 기자

신청 승인시 NEAR 회원단체 79개로 늘어나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올해 가을에 개최하는 제13차 NEAR 총회에서 랴오닝성 신청이 승인되면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로 보면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 꼽힌다. 성도(省都)인 선양(瀋陽) 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가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됐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신청한 건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경상북도와 랴오닝성이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5524771>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PI뉴스

UPI뉴스 > 전국

경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 가입"

■전주식 / 기사승인 : 2021-03-29 10:44:54

포항에 사무국 둔 NEAR 회원단체 79개로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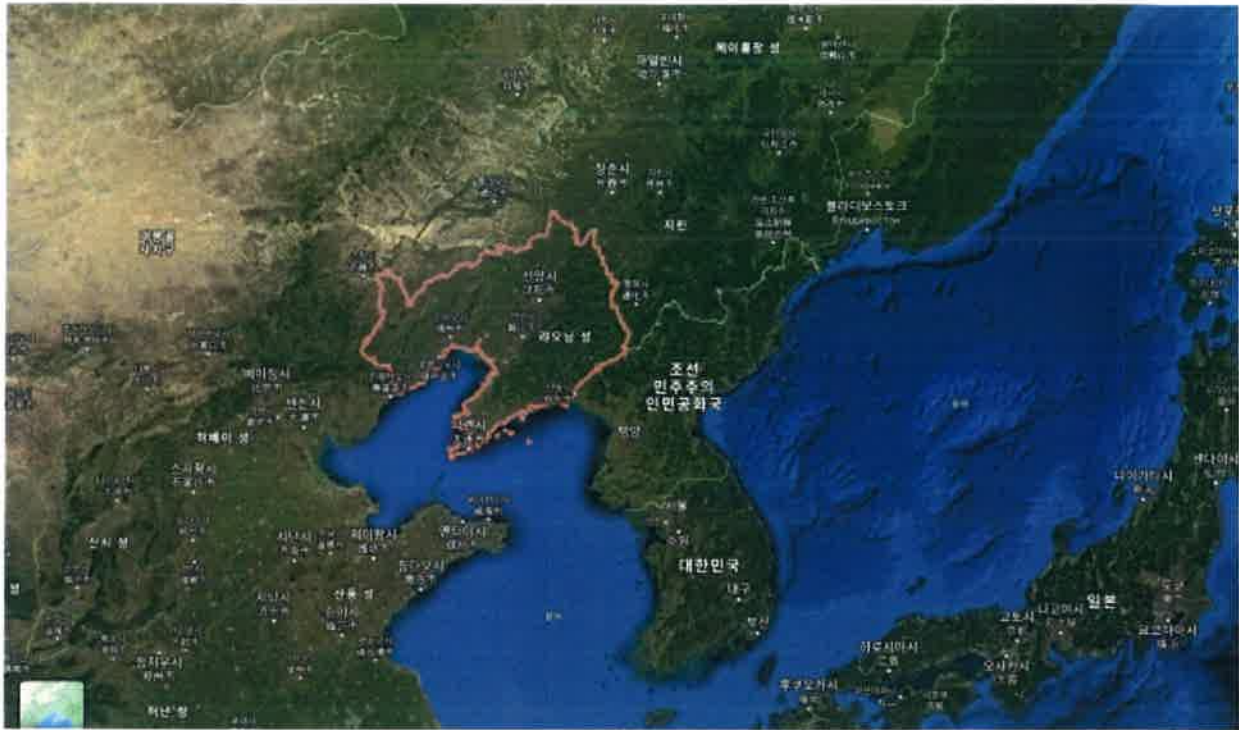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 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국이 경북 포항에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 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0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만8600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도로 표시된 중국 랴오닝성[경북도 제공]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힌뒤 "앞으로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U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upinews.kr

[저작권자 © UPI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upinew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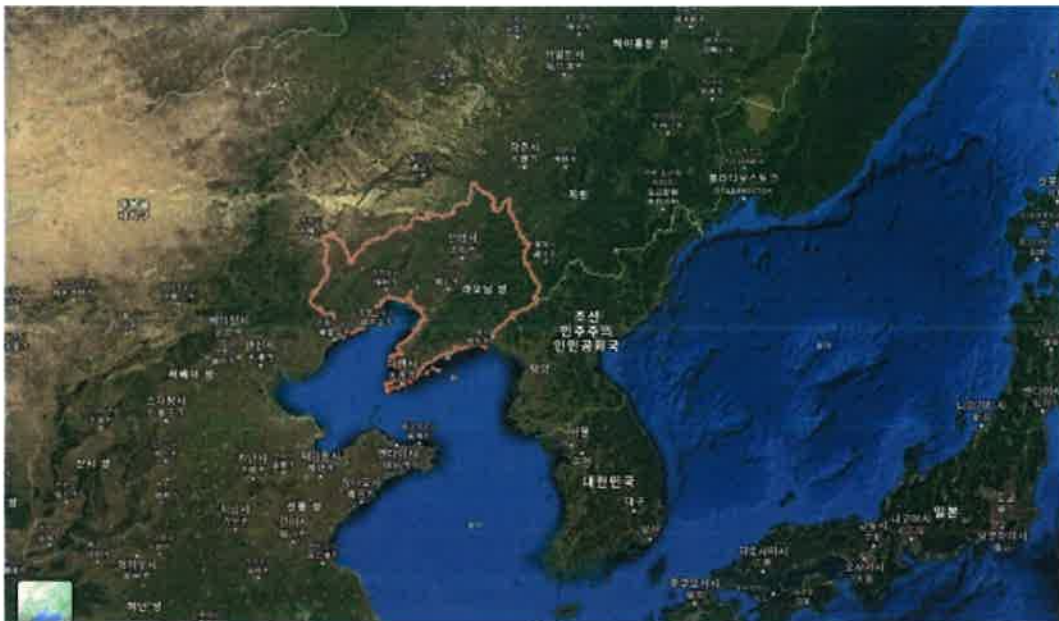
뉴스레п

HOME > 사회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윤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3.29 09:14

|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뉴스레п]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

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인 선양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레п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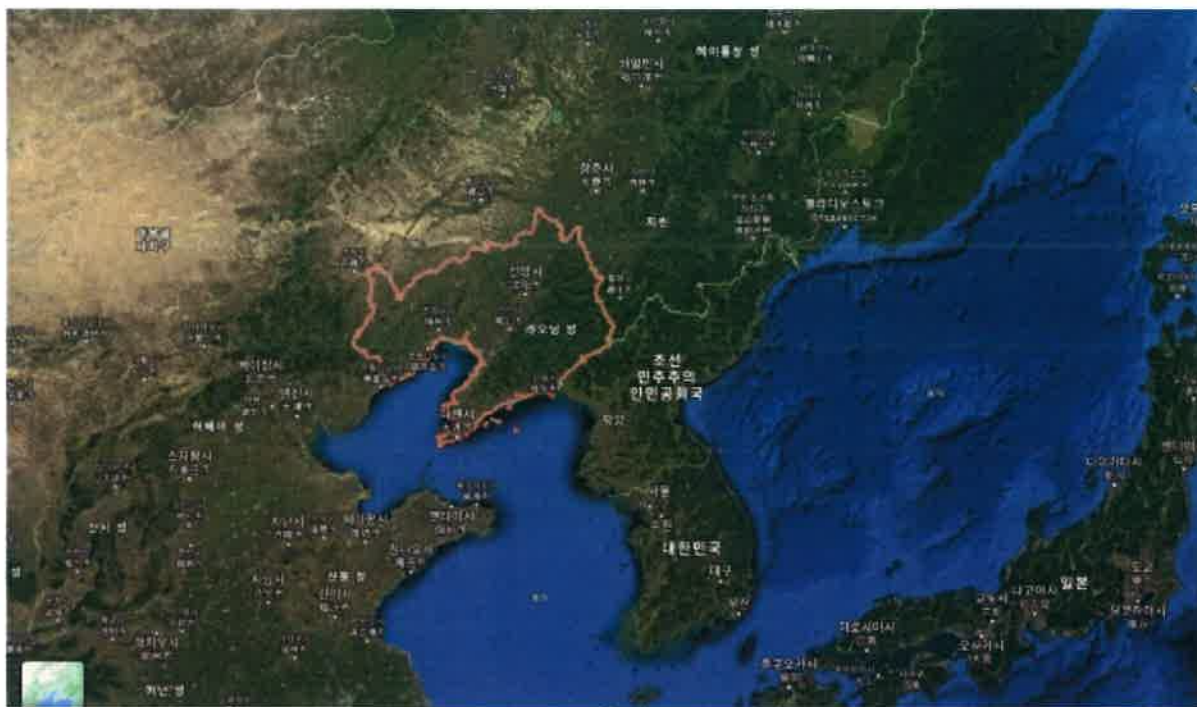


HOME > 전국 > 경북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 주영선 기자 | ☎ 승인 2021.03.29 08:13

|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경북 위클리오늘=주영선 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

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인 선양시에
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
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
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
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선 기자 etc@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인쇄하기

닫기

경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위해 BI 개발 나서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안동) 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 입력 : 2021-03-29 08:56 | 수정 : 2021-03-29 08:59



중국 랴오닝성 위치도.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 북한과 국경 맞닿은 랴오닝성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서 교류 예정'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0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위해 BI 개발 및 홍보동영상 제작 착수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는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BI) 개발 및 홍보동영상 제작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8월 경북도와 동해안 5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은 동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조합해 동해안 전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인식시켜 나가고자 공동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공동브랜드 개발과 홍보동영상 제작은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공동브랜드는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관광객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기억하기 쉬우면서 해양 혹은 바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경상북도 동해안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네이밍과 디자인(로고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서브디자인도 함께 만든다. 해양레저 여행의 목적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브랜드의 활용 전략과 활성화 방안 수립도 병행한다.

홍보동영상 제작은 동해안 5개 시·군의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다. 2D로 된 기존 캐릭터를 3D로 리모델링 작업한 후 실사(實寫)의 경북 풍경과 접목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기존에 많이 노출된 관광지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트렌드한 곳을 택해 개방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해양레저관광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관광홍보 공모전, 동해안 비대면 여행지 선정, 해양 스포츠 셀럽마케팅, VLOG CREW 운영 등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학조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과장은 “공동마케팅을 통해 해양이라 하면 경북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Virus-free) 지역인 경북 동해안을 이미지화 하고 개별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활동으로 해양레저관광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최주호 기자(cjh@ajunews.com)

중국 랴오닝성, NEAR 가입 신청...회원 지자체 79개로 늘어

등록 2021-03-29 08:59:49

중국 다롄과 동베이 지방



[안동=뉴시스] 랴오닝성 위치. (경북도 제공) 2021.03.29 *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는 29일,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NEAR 회원단체 숫자는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한국 공공기관과 1000여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한국과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명,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2019년 12월 경북도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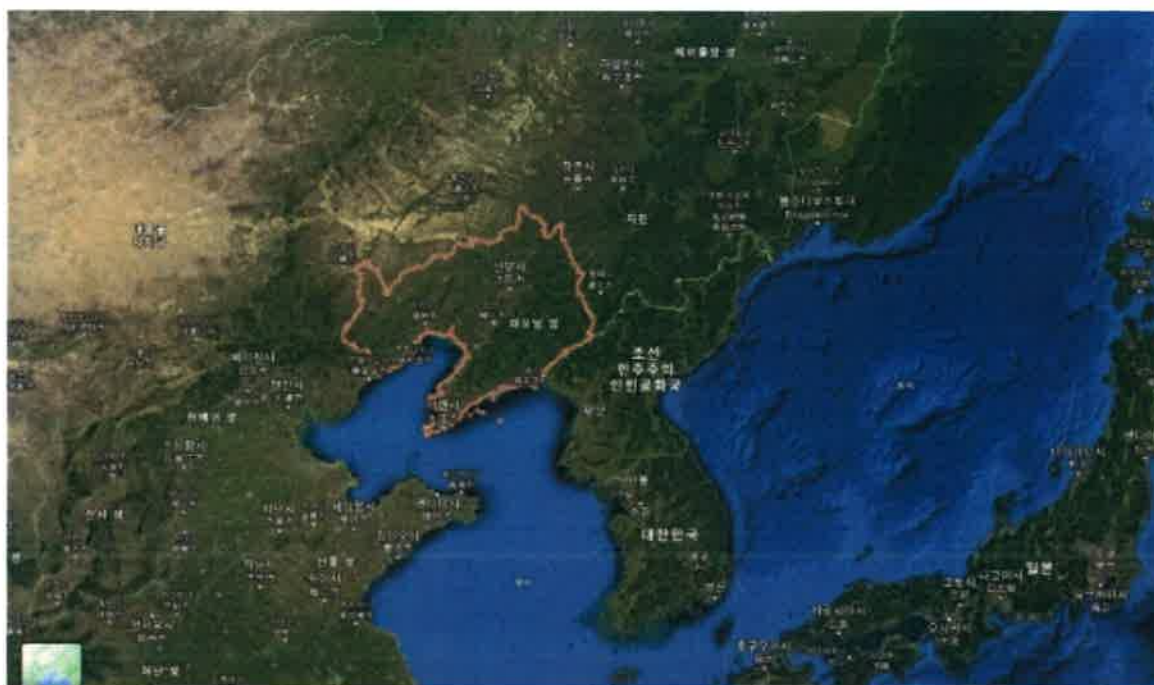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 입력 : 2021년 03월 29일(월) 10:14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url : http://www.egbn.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46&idx=139289

Copyrights ©GBN 경북방송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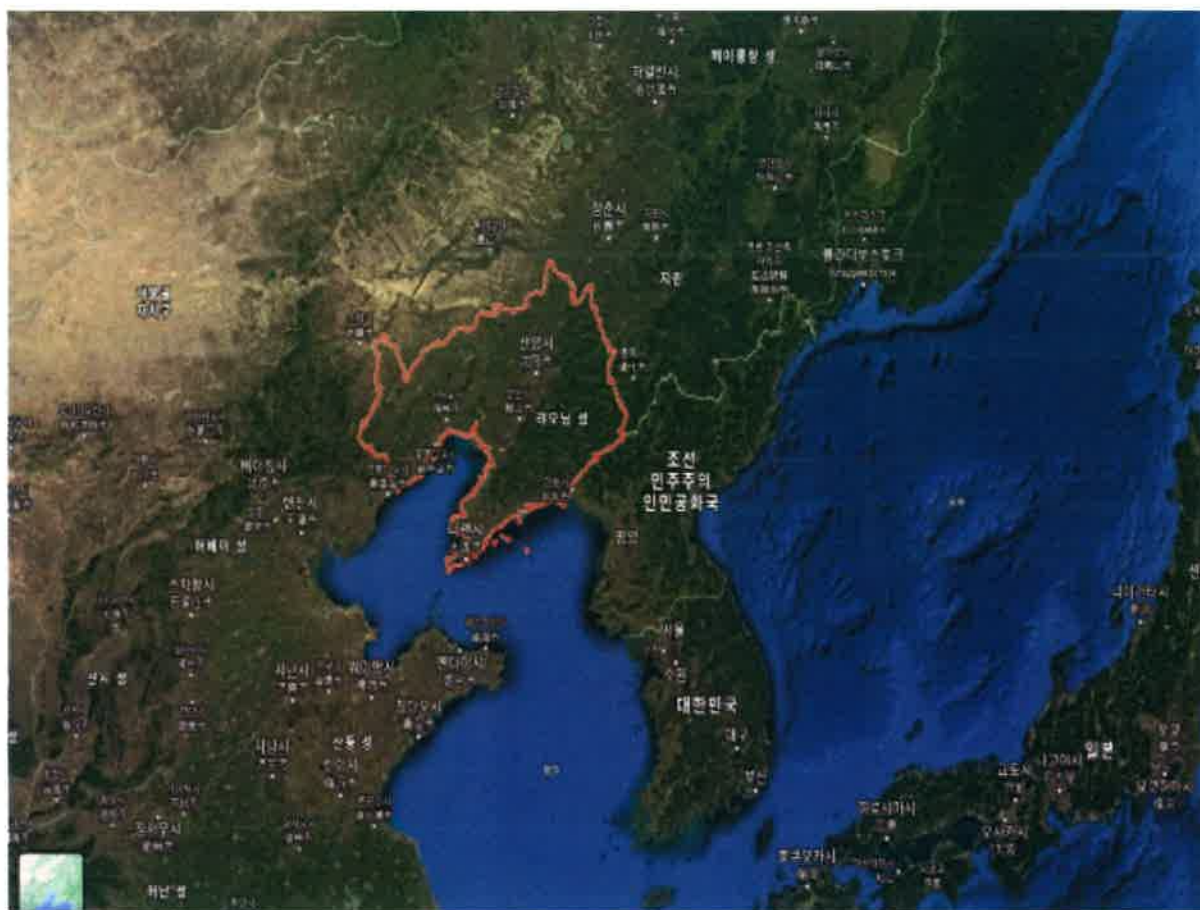
Point The World 뉴스포인트

HOME > 문화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 박마틴 기자 | ☎ 승인 2021.03.29 10:10

|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랴오닝성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마틴 기자 newspoint112@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포인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작성: 2021-03-29 AM 9:45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다롄과 동베이 지방



이유광 기자dcht7000@naver.com

[영남타임즈.kr uyn@uyn.co.kr] 2021-03-29 AM 9:45
<Copyright (c) 영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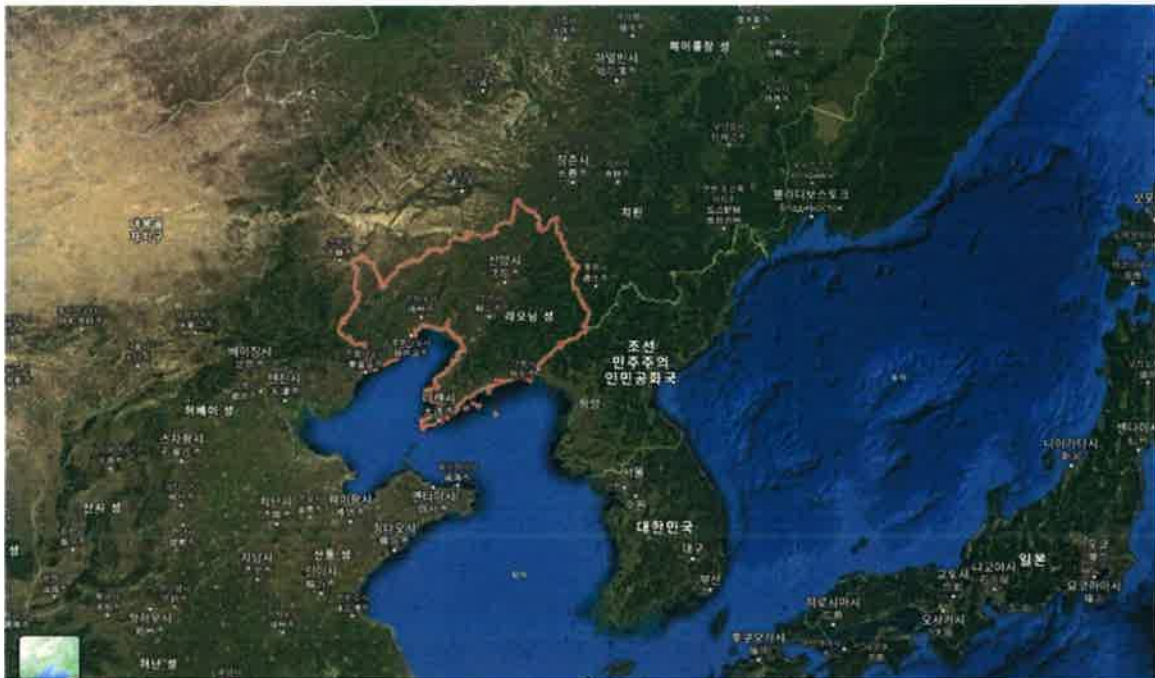
🖨️ 프린트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기사입력시간 : 2021/03/29 [08:55:00]

김영호 기자



▲ © 드림저널

[경북/드림저널]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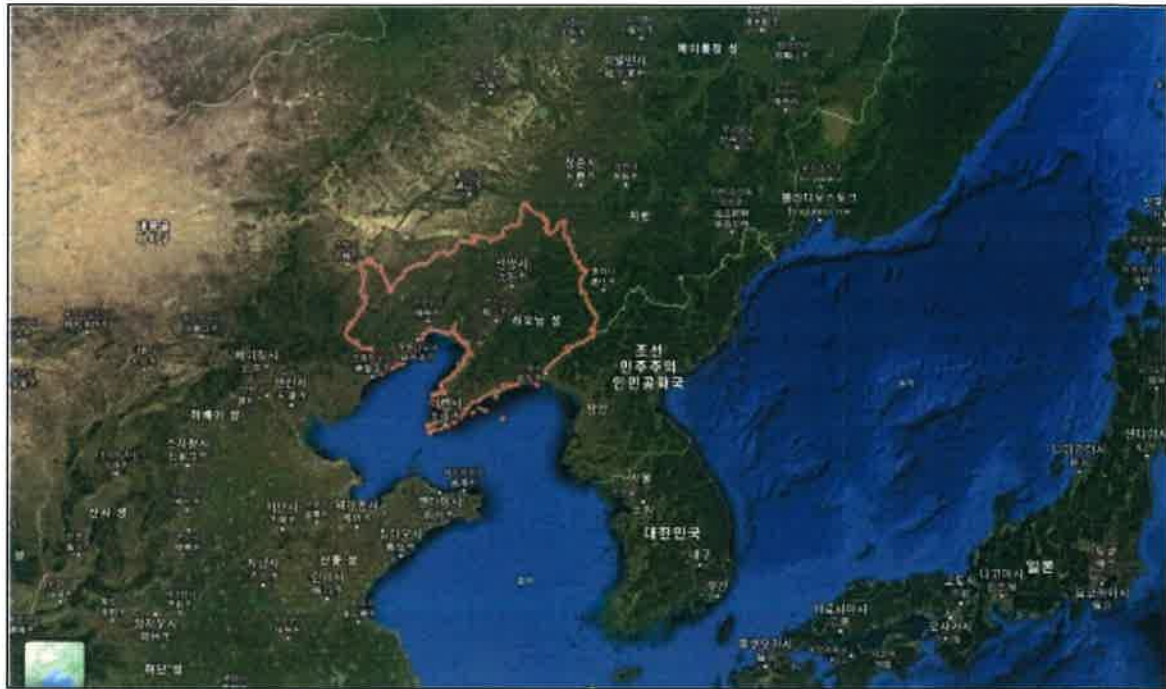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상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

2021년 03월 29일 [cbn뉴스]



↑↑ 랴오닝성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세계로컬핫뉴스]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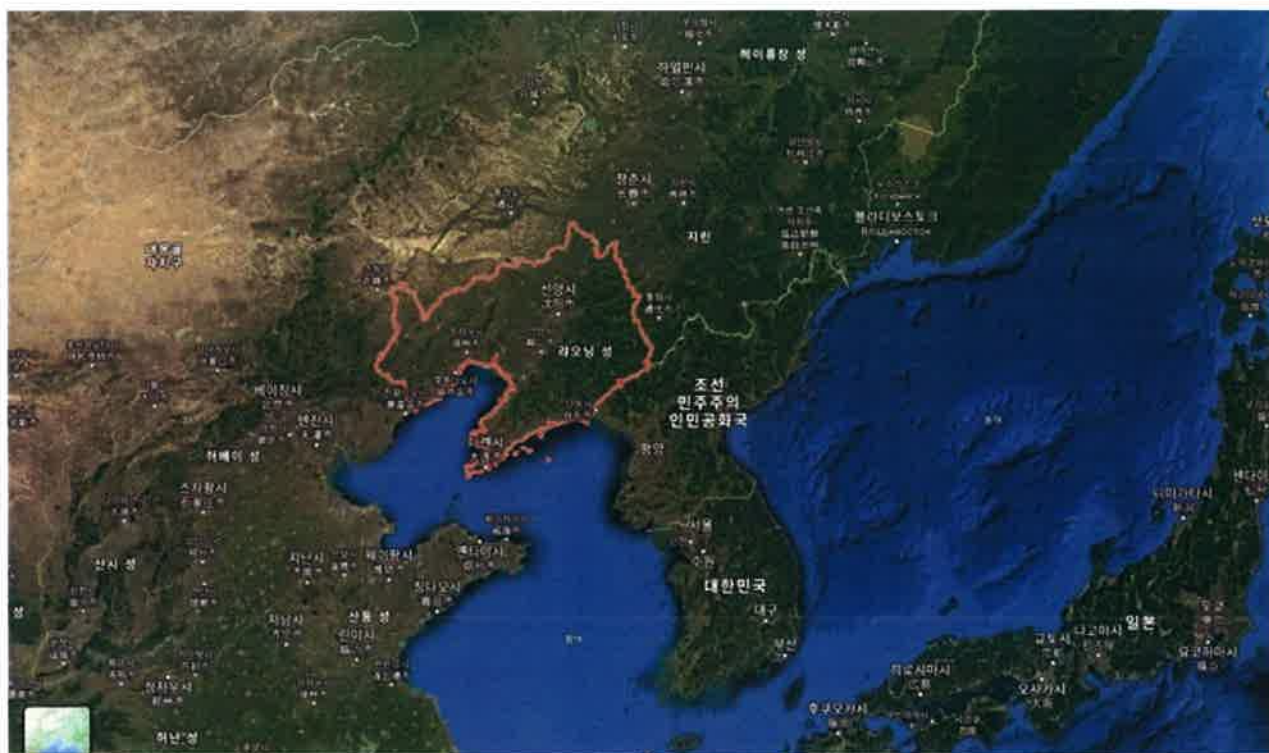
한성국 기자 news@thesegye.com | 2021-03-29 11:52:53

[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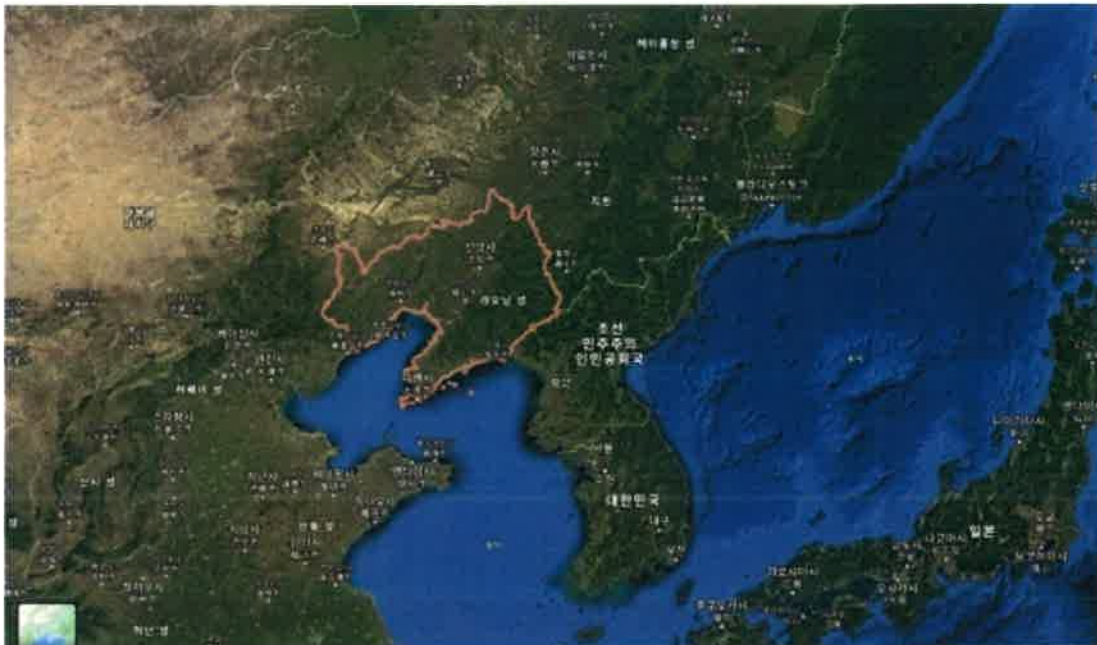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기사입력시간 : 2021/03/29 [08:13:00]

안상일 기자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인 선양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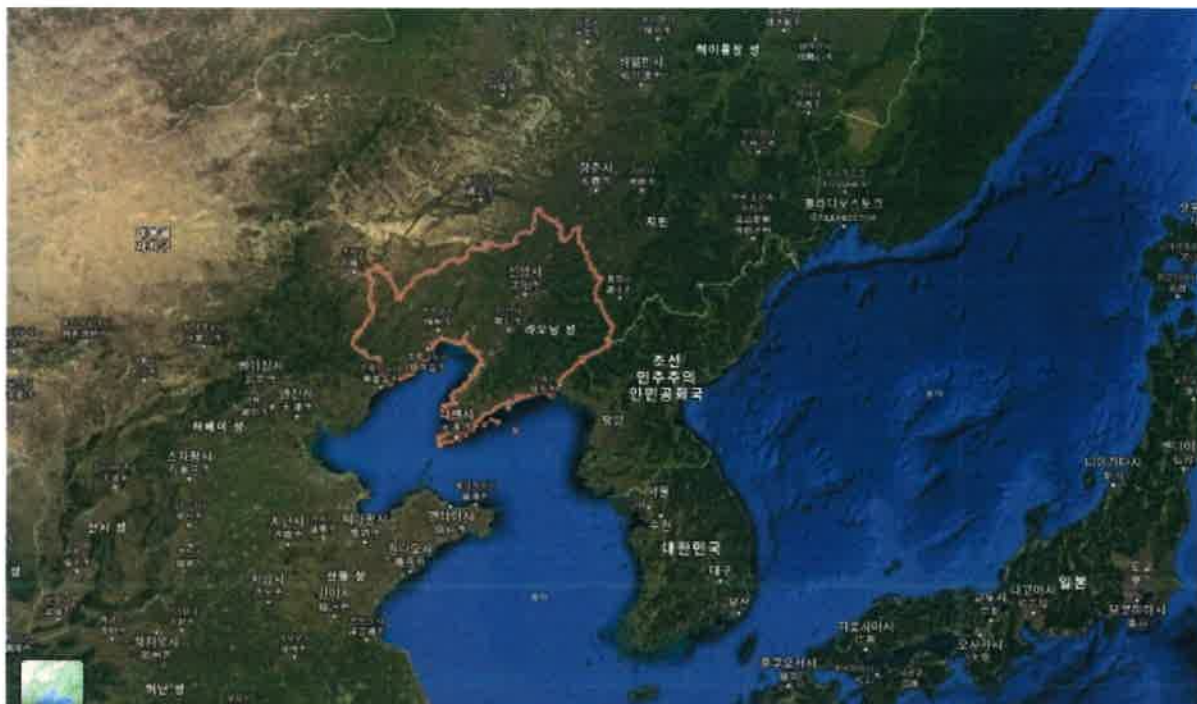
[홈](#) > [뉴스](#) > [지역종합](#) > [경북](#)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2021년 03월 29일 (월) 08:13:00

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 namwoo97@hanmail.net



▲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인 선양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 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ipnews(<http://www.ip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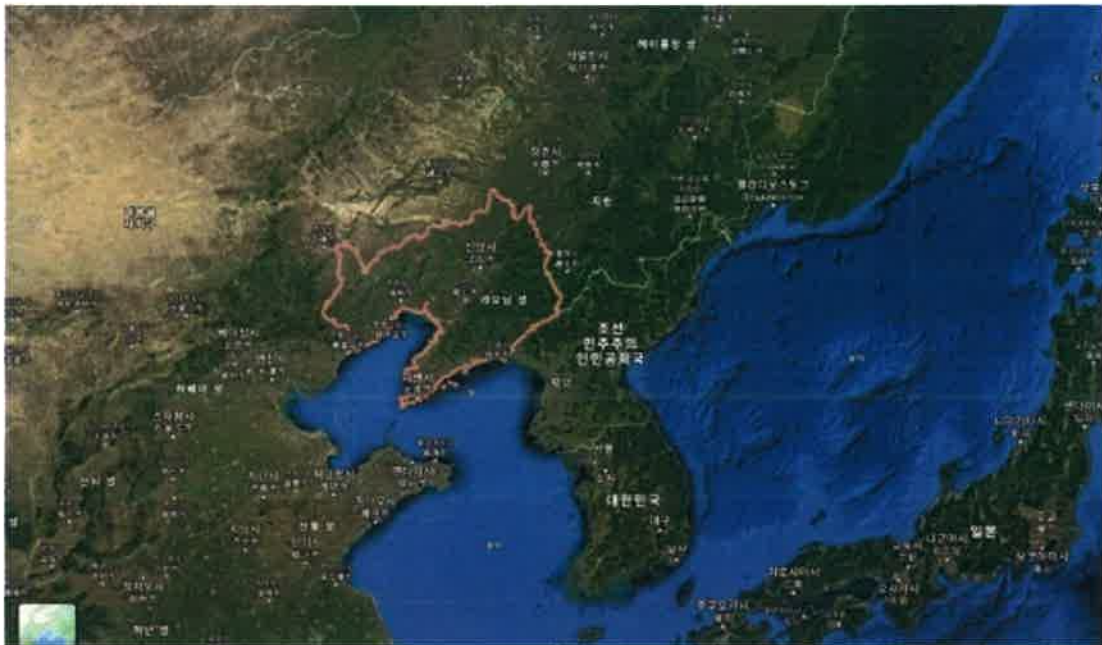
 인쇄하기  창닫기

경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기사입력시간 : 2021/03/29 [08:13:00]

양대영 기자 kspa@kspnews.com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케이에스피뉴스=양대영 기자 kspa@kspnews.com]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성이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인 선양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

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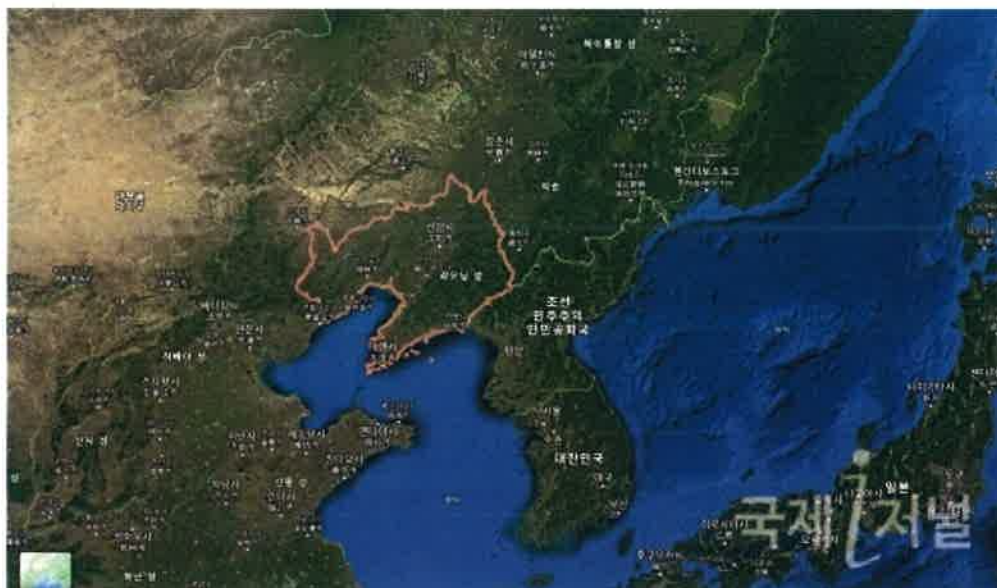
HOME 사회 일반사회 경상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서 제출

경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 구축해 나갈것

서민지 기자

승인 2021.03.30 01:52



▲랴오닝성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민지 기자 ijj@ij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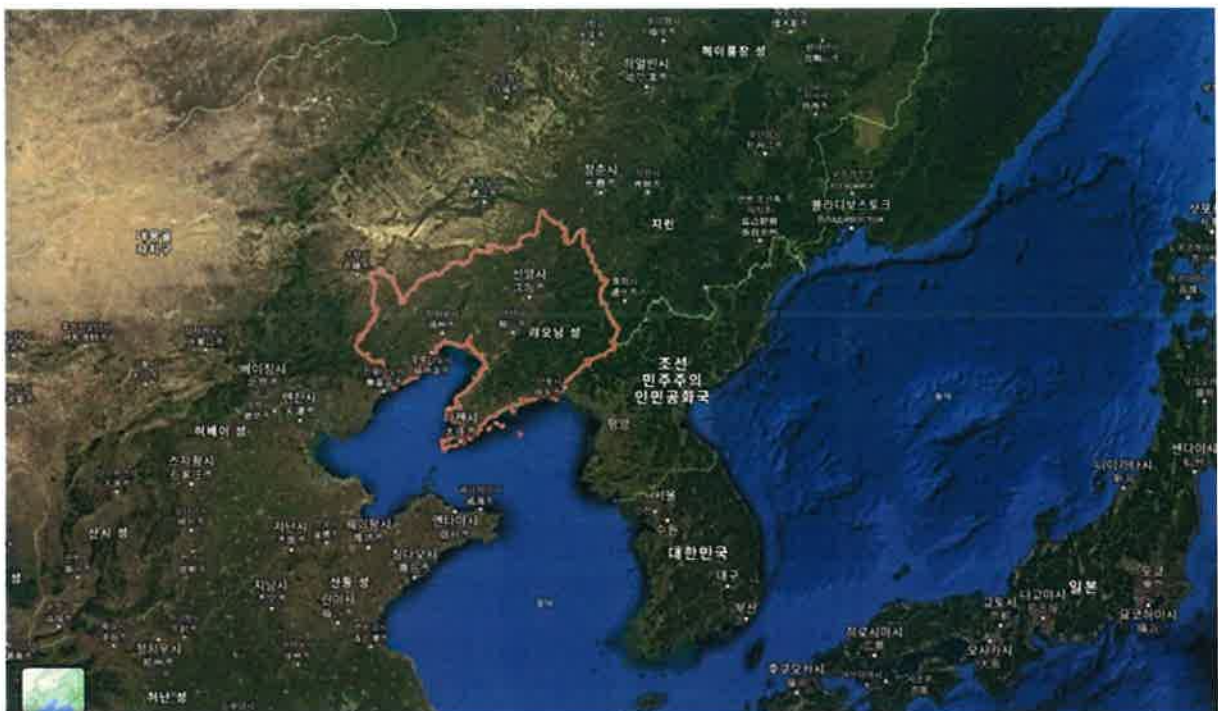


HOME 전국 핫클릭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김연학 기자 승인 2021.03.29 18:35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 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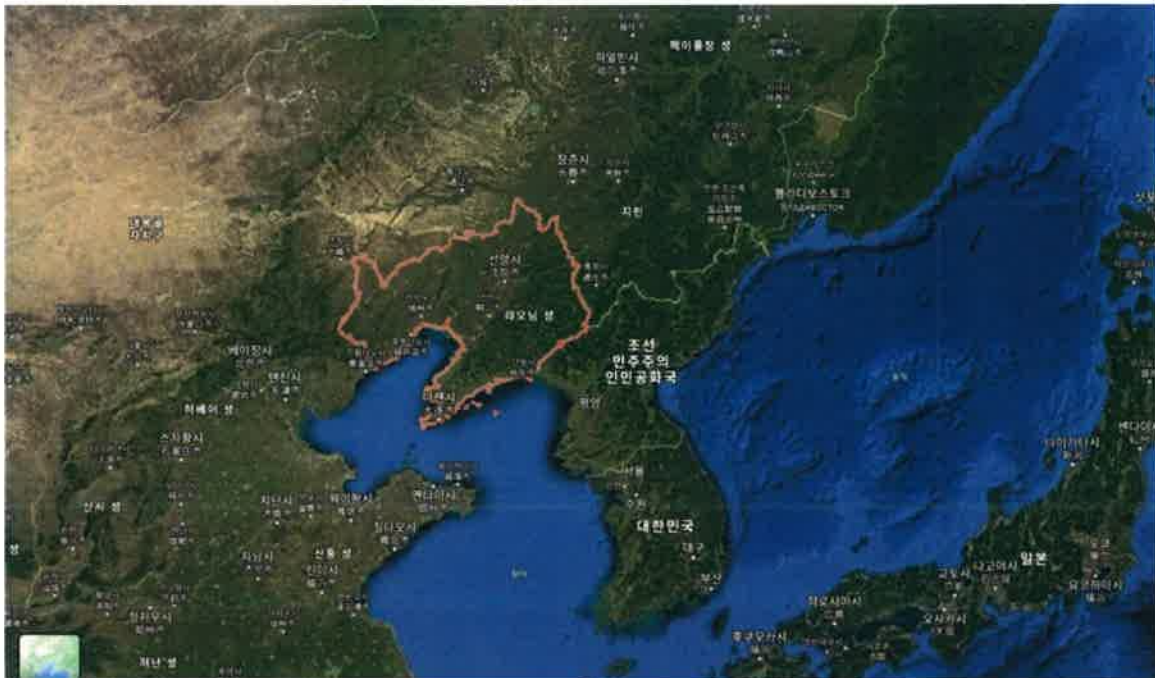
플러스 코리아(Plus Korea)

[경북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기사입력시간 : 2021/03/29 [11:02:00]

유범수 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 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 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 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즐겨찾기 추가



투데이 대구 사건·사고 스포츠 화제의인물 대구만평 행사소식 독자투고 인물동정 기자탐방 칼럼·사설 인사 주간문화 금주농사 포토뉴스 영상뉴스

UGN 경북뉴스 > 경북인터넷뉴스 > 투데이 대구

[인쇄] [글자-] [글자+] ▶

뉴스검색

검색

기사 작성일시 - 2021-03-29 17:16:51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
랴오닝성, 경북도 주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 국제협력 기구



▶ 중국 랴오닝성 위치도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 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고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 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됐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한다"며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9 17:16:51 / UGN경북뉴스(yaho@ugn.kr)

UGN경북뉴스의 다른기사보기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부동산 게시판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인터넷 부동산 소개소입니다.

최근언기기사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정재우 jw5802@ekn.kr

최종 기사입력 2021-03-29 16:08:16



▲랴오닝성(제공-경북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중국 랴오닝성, 79번째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신청

2021-03-29 17:01, 조인호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경상북도 #중국 랴오닝(遼寧)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중국 다롄과 동베이 지방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천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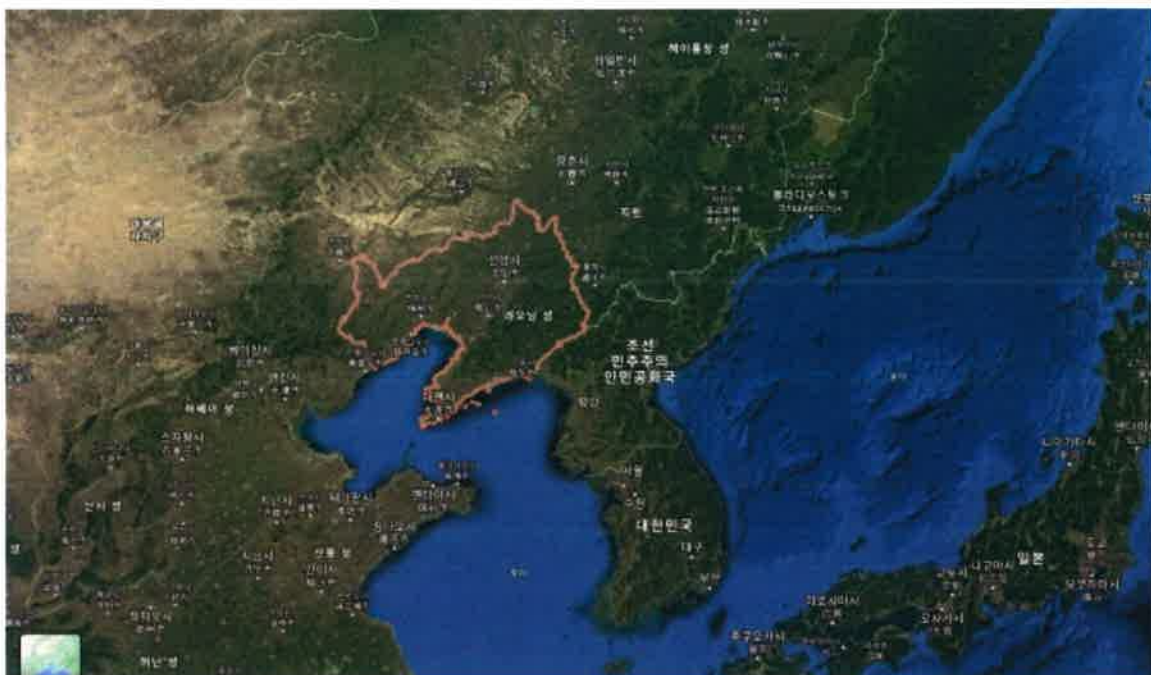
HOME 전국 경북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중부뉴스통신] 김만식 기자

승인 2021.03.29 08:13



▲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중부뉴스통신]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

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인 선양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해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경북도 주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중국 랴오닝성 79번째 가입 신청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3.30 03:04

|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경북=글로벌뉴스통신]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랴오닝성 지도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원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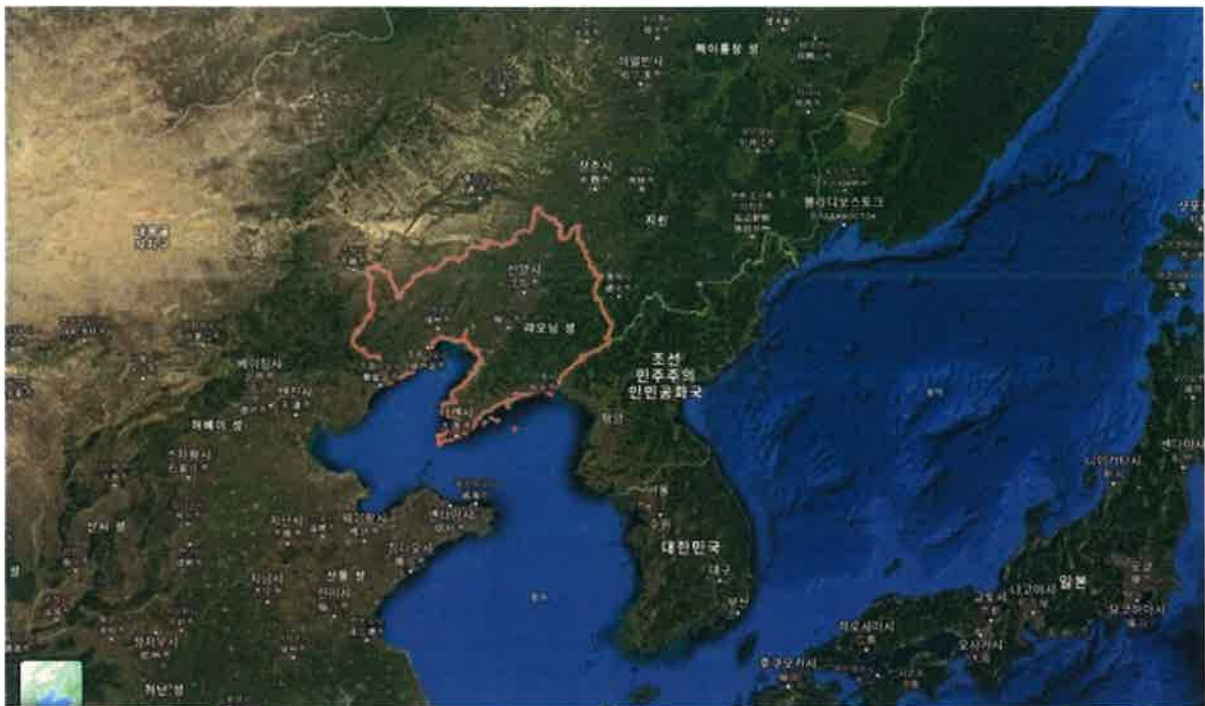
서울뉴스통신

HOME > 전국 > 대구·경북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 김영미 기자 | ☎ 승인 2021.03.29 09:39

|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서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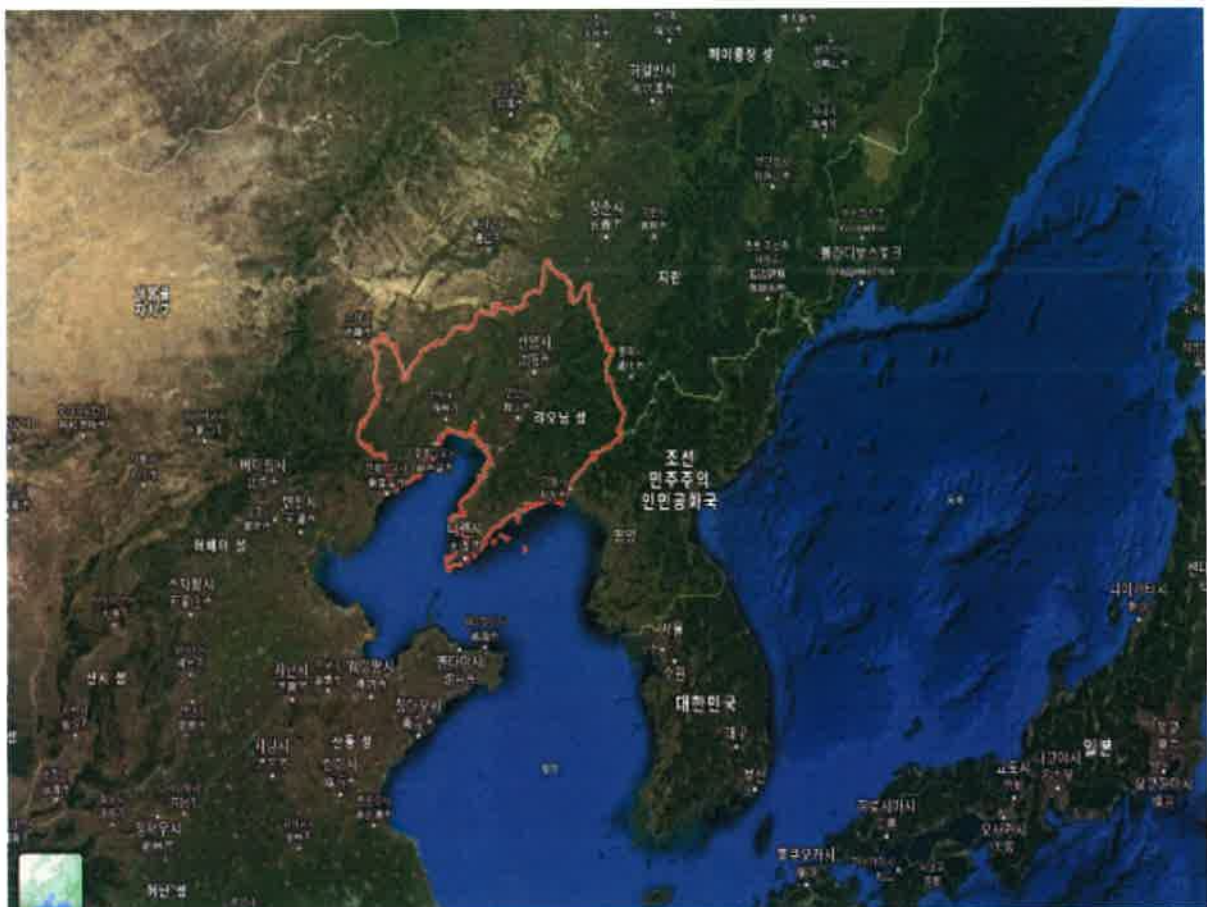
김영미 기자 snakorea.rc@gmail.com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9번째 가입 신청

✎ 디지털편성부 | ㉠ 승인 2021.03.29 11:57

| 중국 랴오닝성, 한국 등 동북아 6개국 78개 광역단체와 국제협력 추구



랴오닝성

[세계뉴스통신 디지털편성부] 경상북도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에 NEAR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3차 NEAR 총회에서 승인되면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NEAR 회원단체 숫자는 총 7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북아 국가별 회원 지자체는 한국 16개, 중국 11개, 일본 11개, 몽골 22개, 러시아 16개, 북한 2개 등으로 6개국 광역지방자치단체(150개)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역으로서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우리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리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랴오닝성은 2019년 기준 인구 4,351만 명이고 면적은 14.86만km²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1인당 GRDP는 8,835달러로 전자기기 등 제조업과 원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 의회 대표단이 선양시를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된 바 있다.

랴오닝성의 회원가입을 이끈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NEAR 가입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풀뿌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공헌하자는 NEAR 설립 취지에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에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편성부 segyenews1@naver.com

저작권자 © 세계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